

광양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나섰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어린이 놀이·공간 인프라 구축

광양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과 어린이 놀이·체험·교육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인화 시장의 주재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광양 소재(Materal) 전문과학관 및 구룡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착수보고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테마파크는 △과학관 △상상놀이터 △숲속야영장 △스포츠클라이밍장 △통합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이며 총 1348억원(국비 229억원·도비 155억

원·시비 964억원)을 확보해 지난 1월 숲속야영장 조성을 착수, 2026년까지 단계별로 완료할 예정이다.

보고회 대상 사업인 과학관은 건축 연면적 7010㎡에 사업비 400억원으로 건축공사 200억원, 전시물 112억원, 기타 88억원이다. 산업도시로 특화된 시의 특성을 반영해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소재(Materal)분야 전문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상상놀이터는 건축 연면적 2820㎡에 사업비 195억원으로 건축공사비 97억원, 전시물 63억원, 기타 35억원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광양만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되고 독특한 콘텐츠 개발



광양시가 지난 10일 광양시청에서 전문가 자문위원 14명과 함께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착수보고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광양시 제공**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를 배려한 공간 조성 △운영인력과 운영비를 고려한 콘텐츠 선정 △사업추진 과정부터 체계적 홍보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과학관과 상상놀

이터는 차별화된 교육·놀이·관광·문화 복합콘텐츠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간구성 등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소년문화의집 1학기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오는 3월6일부터 7월1일까지 주 1회 2시간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질 높은 여가활동을 위해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4개 분야(예체능·교육·요리·예술), 9개 강좌(댄스스포츠·발레교실·통기타교실·영어회화·베이커리 AB 요리학교·캘리그라피)로 구성됐다.

수강신청은 선착순 접수로 오는 15~22일 순천시평생교육포털(<http://lms.schc.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정원의 60%가 모집되면 강좌가 개설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재료비는 수강생 전액 부담으로 과목별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061-749-3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바나나 실증시험·시범사업 성공 광양시, 농업인에 기술 보급

광양시가 농업인의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실증시험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를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3월 1차 실증시험을 시작했던 광양시는 이번 수확을 통해 두 번째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증시험은 유독 추웠던 겨울철 한파를 이겨내고 바나나 실증시험을 완료함으로써 광양에서 아열대작물 재배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더 끌어올린 것으로 의미가 크다.

바나나 실증시험은 지난 4월에 정식한 후 9월에 개화시켜 일조량과 기온이 동시에 감소하는 악조건에서 자라게 해 온도가 1년 중 가장 낮은 시기에 수확함으로써 지역 내 바나나의 생육 적응성을 시험했다. 육묘 재배를 통해 재배기간을 단축하는 실험을 동시에 추진했다.

시는 실증시험을 통해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나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재배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시험포에서 생산된 바나나를 지난 9일 1차 수확해 관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2월 중 2회에 걸쳐 판매(17~18일·24~25일)해 시민들이 국내산 바나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내년 국비예산 확보 방안 논의 장흥군, 건의사업 24건 선정

장흥군이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고 건의사업 컨설팅'을 개최했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청에서 전남도 이선호 국고팀장과 강남중 주무관이 사업 추진 담당자들을 만나 진행했다.

국고건의사업 사전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마친 후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장흥군은 2024년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까지 5차에 걸친 보고회를 갖고 총 24건 3893억원의 국고건의사업을 세웠다.

건의사업에는 전통古기와 역사계승국립기와 박물관 건립, 지역특화 임대형 스포츠 마트 조성, 국립 전남호국원 조성, 해양스포츠 훈련원 유치 등이 포함됐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시가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육성 두 번째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광양시 제공**

'장흥읍 서부권 발전 정책개발 TF' 본격 활동

전문가 자문, 선진지 답사

장흥군은 '장흥읍 서부권 발전 정책개발 TF'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 토요일을 중심으로 연계 체류형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장흥읍 서부권 발전 정책개발 TF'를 구성했다.

조석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2개팀 26명

이 참여한 TF는 지난 10일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개발 TF는 △토요시장 활성화 △도시 디자인 △스토리텔링 △체험 콘텐츠 발굴 △먹거리 개발 및 단지화 등 5개 분야 12개 실천 과제를 지정하고 상반기 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 향기 숲테마공원 조성사업, 문흥빛의 거리 조성사업 등 장흥

읍 서부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을 공유 한 후 각 현장을 방문 발전 방안

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은 TF 활동을 위해 정례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 선진지 답사를 추진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조석훈 부군수는 "공유와 협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TF 활동을 통해 장흥읍 서부권을 발전시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사포1부두 단일 운영사 '여천NCC' 선정

광양항 사포1부두의 운영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중재로 단일화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광양항 사포1부두의 단일 운영사로 여천NCC를 선정하고, 부두에서의 하역 및 제반 업무는 SYTT가 맡아 수행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공동 운영으로 빚어졌던 소규모 분쟁도 사라질 전망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사포1부두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연간 최대 900만톤 이상 반입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나프타 취급 부두

로 알려졌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사포1부두는 투자자인 여천NCC, SYTT,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관련 3개사가 공동 운영함에 따라 자사 화물 우선 하역을 주장하는 등 운영권 분쟁이 빈번했다.

부두 운영과 별개로 저장시설 사용료 조정 건이 문제가 돼 관련 업체 간 10년에 걸쳐 법정 분쟁이 지속되는 등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항만 안전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하역 현장에서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련 3개사와 여러 차례의 협의 및 토론회를 거쳐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운영 3개사는 상호 간 2013년부터 진행돼 오던 저장탱크 시설 사용료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박성현 사장은 "단일 운영사 선정으로 안전 관리체계가 일원화돼 중대재해 발생 시대응과 예방이 가능하고 '항만 안전 특별법' 및 항만 보안 관련 법령의 수행 주체가 명확하게 돼 효율적 부두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튀르키예·지진 피해 모금 고흥군, 28일까지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공영민 군수와 이재학 의장은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응원과 공적자부터 솔선해서 모금에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에 참여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신속한 구호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오는 28일까지 모금된 금액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호남권 로컬크리에이터 모집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가 오는 28일까지 '2023년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호남권 창업팀을 모집한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집중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전국 6개 혁신센터에서 추진하며 전남혁신센터는 6개 권역 중 호남권 주관 기관으로서 사업을 운영한다.

모집분야는 로컬크리에이터(개인), 로컬크리에이터(협업팀)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되며 전국에서 각 100개사, 12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변경되며 로컬크리에이터(개인) 트랙은 최대 4000만원 로컬크리에이터(협업팀) 트랙은 최대 7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전남혁신센터 누리집(<https://ccei.creativkorea.okr.kr/jeonnam/>) 참고, 전남혁신센터 창업일자리본부(061-661-1942)로 문의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